

다니엘서 - 번호 77

예언적 상응의 베일을 벗기다: 1863년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와 성경적 모형론

Jeff Pippenger
2024-02-10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은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에게 선포된 저주로 예표되어 왔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이 성 여리고를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가 그 기초를 그의 맏아들로 놓고, 그 문들을 그의 막내아들로 세우리라." 여호수아 6:26.

1863년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은 건축자들이 모퉁잇돌을 버린 것으로 표상되어 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한 것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1:42, 43.

1863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은 아론의 금송아지로 상징되어 왔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서 갈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였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에 관하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떼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더라(이는 아론이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하도록 벌거벗게 하였음이라). 출애굽기 32:23-25.

1863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은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로 상징되어 왔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에 왕이 의논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수고롭다. 이스라엘아, 보라,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올린 너의 신들이라.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열왕기상 12:27-29.

1863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은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로 예표되어 왔다.

그가 떡을 먹고 마신 후에, 곧 그가 데려왔던 그 선지자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그가 떠나간 뒤에 길에서 사자가 그를 만나 그를 죽였고, 그의 시체가 길에 내던져졌으며, 나귀는 그 곁에 서 있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 열왕기상

13:23-24.

1863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은 고대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을 시작하게 했던 열 번째 시험으로 예표되어 왔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는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서도 이제까지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들 때문이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분노하게 한 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와 함께 다른 영이 있어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민수기 14:21-23.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일어났으며,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그 예언의 원칙에 대해 논평하면서,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각기 자기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를 위하여 더 많이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당한 것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2...”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들을 축적하여 함께 묶어 두었다. 구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섭리의 진행은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이미 반복되어 왔으며,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Selected Messages, book 3, 338, 339.

이사야에 따르면, 늦은 비는 하나의 메시지다. 그는 악인들이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메시지를 "줄에 줄을 더함"이라고 묘사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느냐? 젖에서 댄 자들, 유방에서 떨어진 자들에게로다. 이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기 때문이라. 대저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곧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곧 상쾌하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되어,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울무에 걸리며, 사로잡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28:9-13.

우리가 방금 확인한 여섯 개의 선 가운데, 물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중 하나는 광야의 방향으로 이끈 점진적 시험의 끝으로서 1863년을 강조한다. 두 개는 이전의 언약 백성이 외면당하고 새로운 택한 백성으로 대체되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대로 파괴되고 버려진 채 남겨져야 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한 저주를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저주를 나타낸다. 두 개는 하박국의 두 판을 대표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위조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아론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은 모조된 질투의 형상을 대표하는데, 그 형상은 1863년 도표의 모조품을 대표했다. 함께 놓고 보면, 아론과 여로보암이라는 두 증인은 하박국의 두 판이 하나의 판을 대표함을 가르치는데, 이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의 한 율법을 대표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다. 함께하면 그것들은 하나의 상징이 되며, 합쳐질 때 둘로 이루어진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과 동일한 예언적 역학이 하박국의 두 판에도 존재하며, 아론과 여로보암의 모조품은 함께 그 예언적 현상을 다룬다.

재림운동의 첫 세대는 에스겔 8장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으로 예표되어 왔다. 에스겔 8장에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시작된 그 환상은 이어져 9장에 이르며, 그곳에서는 14만 4천의 인침이 표상된다. 9장의 인침에 대한 묘사를 다루면서, 화잇 자매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삼사대까지 벌하신다고 밝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둘째 계명과 직접 관련된 진리를 결부시키는데, 둘째 계명은 아론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다.

그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베포 입을 사람을 부르시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성읍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또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을 통과하며 치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진멸하되, 그러나 표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하지 말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들이 이에 성전 앞에 있던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의 속죄소를 떠나 보복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으로 그분의 진노를 쏟아 부으려 하신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데에 완전히 기울어진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신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마음이 누그러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들은 은혜의 한계를 넘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여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셔야 한다.

"아모리 족속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가 지나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이 민족은 우상숭배와 부패로 두드러졌지만, 그 죄악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는 사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을 참아 주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때에도 더 나아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여전히 모든 민족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분의 자비가 회개하라는 호소와 함께 베풀어지는 동안 이 장부는 열려

있겠지만, 수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그분의 진노의 사역이 시작된다. 장부는 단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친다. 그들을 위한 자비의 간구는 더 이상 없다.

예언자는 세월을 굽어보며, 바로 이 때가 그의 환상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전례 없는 자비를 받아 왔다. 하늘의 가장 귀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더욱 커진 교만과 탐욕,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리고 지독한 배은망덕이 그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속히 마쳐 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떨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빛과 특권을 누렸던 이들마저 만연한 죄악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 주위의 불의한 자들의 영향으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식어 버리고 악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 참된 경건과 거룩함에 피부어지는 만연한 조롱과 멸시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한다. 그들이 빛을 따르고 마음에서 우러나 진리를 순종한다면, 이처럼 멸시되고 제쳐질수록 이 거룩한 율법은 그들에게 더욱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더욱 드러날수록,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은 한층 더 뚜렷해진다. 다른 한 부류에서 그것들에 대한 경멸이 커질수록, 한 부류에서는 그 신성한 법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진다.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수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거의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징벌하기를 꺼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징벌하실 것이며, 그것도 속히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앉아 무관심하게 파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경건의 누룩은 아직 그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낙심이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작은 무리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히 드러질 것이다.

이 신실한 소수의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원수 갚는 분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은 또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 온 모든 이들의 보호자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에게 오래 참아 오셨을지라도,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명령은 이러하다: '그 성읍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는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왔다. 그들은 책망하고 권고하며 간청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개하여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했지만,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없었다. 증언, 5권, 207-210쪽.

에스겔이 제시한 인침의 환상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재림주의 네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잇 여사는 우리가 선택한 본문을 에스겔 9장을 직접 언급하며 시작하고, 우리가 선택한 그 부분은 또한 에스겔 9장을 직접 언급하며 끝난다. 그 본문에서 그녀는 에스겔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 선지자는 시대를 굽어보며, 이 시기가 그의 환상 앞에 제시되었다.” 에스겔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이루어지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았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예언의 신의 세 가지 구절을 통해, 이사야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본문에서는 ‘옛 사람들’로 지칭되며, 두 본문 모두에서 예루살렘(재림주의)의 지도부를 대표하는—이 옛날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날 것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구절에서는 그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이 그들에게 임하는 신성한 심판의 일부로서 일어날 것인데, 이는 “백성들이 뚜렷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신성한 능력을 보게 되어, 그들이 변명의 여지 없이 남겨지도록”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늦은 비의 현현을 보기를 거부하지만, 말세에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반복될 때 그 비의 절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기별은 셋째 화인 이슬람이다. 막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는가?

이 본문은 교회를 가리키며, 문맥상 에스겔은 그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교회(예루살렘) 안의 구성원들은 ‘작은 무리’와 대조되는데, 그들은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며 ‘충실한 소수’로 규정된다. 성경은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적은 이들만’ 택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 본문의 주제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된다. 백성들은 그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파괴의 일을 이루는 이들이 자신의 천사들임을 분명히 강조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사람들의 죄악을 삼사 대까지 찾아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약속하셨다. 심판의 집행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시사하는 일이다.

이 본문은 에스겔의 멸하는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그의 진노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밝힌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교회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를 뜻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베드로전서 4:17.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집행되며, 그들의 일이 시작될 때 그들에게 ‘모두를 치라’ 하고, 또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노인과 청년,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인을 모두 진멸하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집행되며,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역의 개시가 네 번째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희생의 날에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 풍속의 옷을 입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그날에 또한 문지방을 뛰어넘어 그들의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으로 가득 채우는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물고기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둘째 구역에서 울부짖음이 있으며, 산들에서 큰 무너짐의 소리가 있으리라. 막데스의 주민들아, 울부짖어라. 모든 상인들이 끊어졌고, 은을 취급하는 자들이 다 끊겼도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살살이 살피, 술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채 안주하며 마음속으로 '여호와와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벌하리라. 스바냐 1:8-12.